

전치되는 구성소의 화제적 속성

정 일 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Jeong, Il-Byeong. 2001. **Topical Features of the Preposed Constituents in English Sentence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4, 651-671. There are several English constructions in which a certain constituent appears to the left of its canonical position, typically sentence-initially, leaving its canonical position empty. Such constructions involve Left-dislocation and Y-movement. These operations are called 'Preposing.' The preposed constituent of such constructions is generally regarded as the topic of the sentence which involves that constituent.

Topics must have at least two features; 'aboutness' and 'givenness.' The feature 'aboutness' defines the range of comment, and the feature 'givenness' means 'informationally old or give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the function of Preposing is to reinforce the aboutness of the preposed constituent of a sentence and that most preposed constituents have givenness. We examined Preposing for this purpose. Tough-movement and Passivization were examined also, because they have characteristics informationally similar to those of Preposing.

1. 서론

영어문장에서 여러 가지 전치(preposing) 현상을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이다.

- (1) She has two brothers, Tom and Jerry. She likes Tom a lot.
Jerry she can't stand.
- (2) About 70 yards away, there was a lookout hole, and *in this hole*, was a German sentinel.

- (3) a. A: What do you think of John?
 b. B: He's very successful, but humble guy.
 c. A: *Successful*, yes. But *humble* he's not.
- (4) Whether he stands or falls is his own Master's business; and *stand* he will, because his Master has power to enable him to stand.
- (5) ... and the Widow Douglas, is all told about in that book — which is mostly a true book; with some stretchers, as I said before. ... *The Widow Douglas*, she took me for her son, and

(1)-(4)에서는 소위 Y-이동(Y-movement)¹⁾에 해당되는 예를, 그리고 (5)에서는 좌측전위(Left Dislocation)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문장에서 이탤릭체로 표기된 구성소는 자신의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나 문장의 주어 보다 앞에 위치해 있는 공통점을 보이는데, (1)에서는 명사구가 (2)에서는 전치사구가 (3)에서는 형용사구가 (4)에서는 동사구가 전치되어 있고, (5)에서는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와 동지시적인(co-referential) 명사구가 문두에 나타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들 전치된 구성소들이 화제(topic)의 필수적 속성인 대하여성(aboutness)²⁾을 지니게 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전치는 대하여성을 극대화하거나 생성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아울러 전치되는 구성소가 주어 집성(givenness)을 지니는 것이 무표적(unmarked)현상이라는 이라는 점도 보여주고자 한다.

화제에 대한 정의가 완벽하게 통일되어있지는 않지만 화제에 대

¹Postal(1971)은 화제화구문(topicalization)을 Yiddish어의 영향을 받은 구조라 하여 Y-movement라 하였다. 그러나, Hankamer(1971)는 Y-이동과 화제화를 구분한다. Hankamer는 NP가 전치되는 경우를 화제화로 보고, NP 이외의 구성소도 전치되는 경우를 Y-이동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NP이외의 이동까지 논의할 예정이므로 Y-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²대하여성과 주어집성에 대해서는 2절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는 문장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대상(object)’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은 이 대상에 대한 논평(comment)을 통해서 이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제가 지니는 필수적인 속성을 대하여성(aboutness)과 주어집성(givenness)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2절에서는 화제의 두 가지 주요한 속성인 대하여성과 주어집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3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전치 구문 이외에도 비주어 상승(tough-movement)구문과 수동문의 예를 통해서 전치되는 구성소가 가지는 두 가지의 화제적 속성에 대해 논의하겠다. 수동문이나 비주어 상승구문은 전치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이들 구문의 주어에 해당되는 구성소가 원래의 위치에서 문두로 이동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치된 구성소와 정보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함께 다루기로 한 것이다.

2. 대하여성과 주어집성

2.1. 대하여성

화제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thesius(1915)는 ‘화자가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원하는 것,³⁾ Halliday(1967)는 ‘그것에 대해 말해지고 있는 것, 전언으로서의 절의 시발점⁴⁾이라고 화제를 정의한다. Gundel(1988)은 ‘만일 화자가 한 개체 E에 대해 청자의 지식을 증대시키든가 또는 그것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든가, 청자로 하여금 E와 관련된 행동을 하게 할 의도를 갖는다면 E라는 개체는 문장 S의 화제이다⁵⁾로 정의하고 있다. 유사한 정의는 Givón(1983, 1993), Lambrecht(1994)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문장 혹은 명제가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 어떤

³⁾ ... what the speaker wants to speak about, topic ... (Vallduví (1992: 31)에서 재인용)

⁴⁾ ... what is being talked about, the point of departure for the clause as a message, ...

⁵⁾ An entity E is the topic of a sentence S, iff in using S the speaker intends to increase the addressee's knowledge about, request information about, or otherwise get the addressee to act with respect to E.

것이 화제가 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지금까지 여러 선행연구자들이 내린 화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있는데 모두가 'x에 대한 (about x)'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같은 바탕에서 대하여성(aboutness)이라는 속성을 상정해 낸 것인데 이 속성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논평의 범위를 한정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평의 대상은 화제가 되어야하므로 화제에 대한 어떤 통일된 정의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화제라는 정보적 구성소가 대하여성이라는 속성을 가져야 함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대하여성을 가지는 것이 화제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대하여성을 지닌 모든 구성소를 화제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⁶⁾

문장 내에서 대하여성을 가지는 구성소는 복수일 수 있다. Givón(1993)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등이 화제성(topicality)을 가질 수 있는데 문장이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Givón의 화제성이란 대하여성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이 같은 주장은 하나의 문장 내에서 대하여성을 가진 구성소가 복수일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⁷⁾ Lambrecht(1994)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볼 수 있다.

(6) Q: What ever became of John?

A: He married Rosa, but *he* didn't really love *her*.

Lambrecht는 (6)의 *he didn't really love her*를 통해서 청자는 *John*뿐만 아니라 *Rosa*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기 때문에 *he*와 *her*가 모두 화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바꾸어 말하면 *he*와 *her* 모두가 대하여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한 문장 내에 화제가 몇 개가 있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본 논문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겠으나 한 문장 내에 대하여성을 가진

⁶⁾그 이유는 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속성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⁷⁾Givón은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의 순서로 화제성의 정도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주어가 가장 중요한 화제이기 때문에 주어를 제1화제라 하였다.

구성소가 복수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밖에도 Gundel (1974), Prince(1984), Ward(1988), Vallduví(1992)⁸ 등의 논의를 통해 서도 한 문장 내에 대하여성을 가진 구성소가 복수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내의 위치에 따라 각 구성소가 지니게 되는 대하여성의 정도에 차이가 난다. 앞서 살펴본 예문 (6A)는 *John*에 대한 이야기 즉 *Joh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문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6A)는 부수적으로 *Rosa*에 대한 정보도 전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주어위치의 *he*(=*John*)가 가지는 대하여성이 목적어 위치의 *her*(=*Rosa*)가 가지는 대하여성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장의 앞에 오는 구성소가 가지는 대하여성이 뒤에 오는 구성소의 대하여성보다 큰 것이다. Lambrecht(1994)는 이러한 경우에 *he*를 제1화제(primary topic), *her*를 제2화제(secondary topic)라 한다. Givón(1993)에서도 문장의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순으로 화제성(topicality)의 차이가 나는데 주어가 가장 화제성이 강하다고 한다. Givón의 화제성이란 대하여성에 바탕을 둔 개념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화제성의 차이란 대하여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이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대상 혹은 청자의 관심을 끌고 싶은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을 문두에 둬으로써 대하여성을 높인다. 화자가 어떤 구성소를 정상적인 위치에 두지 않고 문두에 둘 때는 그것의 대하여성이 강화되는데, 이런 방법은 화제를 바꿀 때 사용하기에 좋다.

⁸Vallduví는 'as for test'와 'what-about test'를 통하여 대하여성만으로 화제를 정의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as for test와 what-about test는 대하여성으로 화제를 판별하는 test인데 다음 (1)과 같은 경우에 *Linguistics*와 *me*를 모두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화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1) She told me I need a change in my life, like getting a new job. It was to no avail. *Linguistics* fascinated *me*. Wall Street would have to wait.
- (2) a. i. (?)As for linguistics, it fascinated me.
ii. What about linguistics? It fascinated me.
b. i. As for myself, linguistics fascinated me.
ii. What about myself? Linguistics fascinated me.

2.2. 주어집성

화자는 청자에게 화제에 대한 정보를 문장을 통해서 전달한다. 화제는 그 자체가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그것에 대해 알고 싶은 혹은 화자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화자들이 그 대상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알고 있다’라는 말은 그 언어 표현의 의미를 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것이 이미 이전 문맥에서 거론된 것이거나 거론된 것과 마찬가지로인 상태라서 지금 대화자들 특히 청자의 기억 속에 활성화된(activated)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또한 그것이 이전 문맥과 어떤 연관을 가져야 한다는 뜻도 된다.

이와 관련하여 Firbas(1964)는 화제를 ‘알려진(known),’ Chafe(1974)는 ‘주어진(given),’ Dahl(1974)은 ‘한정적인(definite)’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밖에 Vallduví(1992),⁹⁾ Lambrecht (1994) 등에서도 화제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어집성이란 ‘화자가 말하는 대상이 청자의 기억속에 이미 활성화 되어있어서 청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문장내의 어떤 구성소가 앞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라면 그 구성소가 가리키는 대상은 현 담화에서 청자의 기억속에 활성화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대상은 주어집성을 갖는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어집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 아니라할지라도 총칭적인(generalized)것은 청자의 기억 속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자의 기억 속에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문맥 내에서 처음 언급되더라도 청자가 쉽게 인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것들도 주어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I don't like tomatoes), *potatoes* I like.¹⁰⁾

⁹⁾Vallduví(1992)에서는 화제라는 용어 대신에 고리(link)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의 고리에 대한 정의가 화제의 정의와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구성소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므로 Vallduví의 고리를 화제와 같은 것으로 보기로 한다.

¹⁰⁾Givón(1993)에서는 이 경우에 *potatoes*를 총칭명사구로 보고 있으나 *potatoes*가 가지는 주어집성이 poset관계(각주 11 참조)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7)에서 *tomatoes*, *potatoes*는 총칭적인 명사구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담화에서 처음 언급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청자가 별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밖에도 이전 문맥의 내용 중에서 단서를 찾아 유추함으로써 어떤 대상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면 이 대상도 주어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추에 의해서 주어집성을 가지게 된 예이다.

(8) Next they offered us lunch. I finished my sandwich right away. *The salad* I didn't touch.

(8)에서 *The salad*는 *lunch*라는 단서를 통해서 쉽게 유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집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Ward/Birner(1998)는 이처럼 이전 문맥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구성소가 주어집성을 갖게 되는 현상을 poset¹¹⁾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Ward/Prince도 이전 문맥에서 명시적인 단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유추에 의해서 주어집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9) A: The TV repairman keeps looking in the mirror.
B: *Handsome/A sex simbol/Mel Gibson* he's not.

(9)에서는 TV수선공이 계속 거울을 보는 행위를 통해서 그의 외모

¹¹⁾poset(partially ordered set)이란 원래 Hirschbirg(1991)에서 제시된 용어를 Ward/Birner가 차용한 것으로서 일종의 순서쌍 집합이다. 순서쌍을 이루는 원소들 간의 관계에는 유형/아류형(type/subtype), 부분/전체(part/whole), 개체/속성(entity/attribute), 동일성(identity) 등의 관계이다. 문맥내의 명시적 구성소를 통해서 추론될 수 있는 poset을 닻(anchor)이라 하고 이 닻을 추론하게 하는 문맥내의 어떤 개체를 고리(link)라 한다.

Q: Do you like *this album*?
A: Yeah, *this song* I really like.

위의 예문에서 *this album*과 *this song*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Album parts}라는 poset이 추론되고 *this song*은 이 poset을 통해서 주어집성을 얻는다. Ward/Birner는 전치된 구성소는 어떤 것이든 담화내에서 정보적으로 '주어진(given or old)'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 poset개념을 차용하였다.

(physical appearance)를 유추하게 되고 이 것을 통해서 *Handsome/A sex simbol/Mel Gibson* 등의 표현이 주어집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3. 전치와 화제적 속성

3.1. 좌측전위(Left-Dislocation)

다음 (10)과 같은 예가 좌측전위이다.

- (10) a. *Mary, she really loves me.*
 b. *Mary, I really hate her.*

(10a, b)처럼 좌측전위구문에서는 전치된 구성소가 이어지는 절에서 자기와 동지시적인 대명사를 가지고 있다. 이 구문에서는 전치된 구성소가 없어도 통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Dik(1978)는 이처럼 좌측전위된 구성소를 주제(theme)라 하는데 이 주제는 이어지는 서술(predication)의 영역을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서술의 영역을 지정해 준다는 말은 대하여성을 갖는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서술을 주제에 대한 논평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a, b) 모두 *Mary*라는 대상에 우선적으로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켜놓고 그에 대한 논평을 하고 있다. (10a, b) 모두 주로 *Mary*에 대한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Mary*는 문장내의 어떤 구성소보다 더 큰 대하여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좌측전위구문에서 문두의 구성소는 문장내의 다른 위치에서 이동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두의 구성소가 가리키는 대상이 갖는 대하여성은 증대된 것이 아니라 좌측전위를 통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좌측전위구문을 Givón(1993)은 화제화구문의 하나로서 이전 담화에 언급되었지만 한 동안 문맥에서 사라졌던 대상을 다시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구문으로 본다. 어떤 대상을 뚜렷이 드러내는 이유는 이 대상이 가지는 대하여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이것을 화제로 삼기 위해서 라고 볼 수 있다.

- (11) ... So *the king* went on a crusade, leaving the queen in the dilapidated old castle to fend for herself, taking care of the country, the children, and hungry citizenry, when she undertook to do in a splendid fashion. She worked her butt off, in fact, nothing was too small or too insignificant to merit her attention. Now *the king*, he found himself

(11)에서 *the king*은 잠시 동안 문맥에서 사라진다. 그러다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대화자들의 관심에서 잠시 벗어나 있던 *the king*에 청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문두의 위치에 전치시킨 것이다.

Geluykens(1992)는 좌측전위의 주 기능이 어떤 대상을 강조(referent-highlighting)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을 강조하려는 목적은 역시 이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므로 이 같은 주장 역시 좌측전위의 기능이 대하여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좌측전위되는 구성소는 대부분 주어집성을 가진 것들이다. Reinhart(1981)와 Vallduví(1992)는 전치되는 구성소의 지시대상(referent or denotation)은 이전 문맥과 조용적으로(anaphorically) 연결되어 있어야한다고 하였다. Givón(1993)과 Ward/Birner (1998)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좌측전위도 전치의 하나이므로 유사한 속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Givón(1993)은 이 좌측 전위가 새로운 지시대상(referent)를 도입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한다.

- (12) a. *John*, I saw him there yesterday.
 b. *Politicians*, I've never met one I could trust.
 c. **A politician*, I saw him there yesterday.

Givón은 (12a)에서 *John*은 한정적 명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12b)의 *politicians*는 총칭적인 명사구이므로 전치가 가능하지만, (12c)의 *A politician*은 총칭적인 성격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전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12b)의 *politicians*는 이어지는 문장의 *one*과 관련 지어볼 때 총칭적으로 해석되지만 (12c)의 *A politician*은 이어지는

문장의 *him*과 관련지어보면 이를 총칭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정적이거나 총칭적인 명사구는 주어집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12a, b)의 *John, Politicians*는 전치가 가능하지만, (12c)의 *A politician*은 주어집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전치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5)에서 보았던 예문도 좌측 전위구문의 하나인데 (13)으로 다시 살펴보겠다.

(13) ... Mary, and the Widow Douglas, is all told about in that book — which is mostly a true book; with some stretchers, as I said before.

... *The Widow Douglas*, she took me for her son, and

(13)의 마지막 문장에서 좌측전위된 *The Widow Douglas*이하의 ‘she took me for her son’은 바로 그녀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The Widow Douglas*는 대하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명사구는 이미 이전 문맥에서 언급된 바 있음으로 주어집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예들에서는 좌측전위된 구성소가 가리키는 대상은 모두 주어집성을 가지고 있지만 Prince(1997)에서는 좌측전위된 구성소가 신정보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경우의 좌측전위를 Prince는 신정보인 이 구성소가 선호되지 않는 위치(non-favored position, i.e., subject)에 나타나는 것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¹²⁾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좌측전위되는 구성소가 가리키는 대상이 강한 대하여성을 갖는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3.2. Y-이동(Y-movement)

이 구문에서 우리가 다룰 것은 전치되는 구성소가 문장의 필수적 성분인 경우이다. Ward(1988), Ward/Birner(1998)에서는 이 필수적 성분들을 ‘어휘적으로 지배되는(lexically governed) 성분이라 하는

¹²⁾문장의 앞부분(주어의 위치)에 구정보가 나타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입장이다(Prague언어학파의 기능적문장구성론(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등 참조).

데 이들은 술어동사의 하위범주화 속성(subcategorizational features) 때문에 필요한 성분들이다. 이 성분들은 전치에 제약을 받는다. 다음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 (14) a. *In a basket, I put your clothes.
b. I put your clothes in a basket.

- (15) a. In New York, there's always something to do.
b. There's always something to do in New York.

(14)의 *in a basket*은 동사 *put*에 의해서 어휘적으로 지배되는 구성소이므로 전치에 제약을 받는데 이 때의 제약은 '전치되는 구성소는 주어집성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15)의 *in New York*은 어휘적으로 지배되지 않는 부가어(adjunct)이므로 전치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 이것들의 역할은 공간적 시간적 문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의 주요 관심사인 화제와는 거리가 있지만 문두에 나타남으로써 어느 정도의 대하여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Y-이동에서는 NP뿐만 아니라 VP, AP, PP 등의 전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들 전치되는 구성소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모두 대하여성과 주어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논의해 보겠다.

먼저 NP가 전치된 경우를 살펴보겠다.

- (16) She has two students, Tom and Jerry.
She likes Tom a lot. *Jerry*, she can't stand.

- (17) A: If there're fewer than five students waiting in line then
I guess we can start. How many are there?
B: Five.
A: *Five students* we don't have to wait for. More than that
we would.

이 같은 구문에서의 NP의 전치는 흔히 화제화(topicalization)로 인

정되고 있다. 즉 전치된 NP가 화제가 된다는 말인데 화제가 되는 구성소가 가리키는 대상은 대하여성과 주어짐성을 가지고 있다. (16)에서 *she can't stand*는 *Jerry*에 대한 논평이다. (17)에서 *we don't have to wait*는 *Five students*에 대한 논평이다. 따라서 *Jerry*와 *Five students*는 대하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16), (17)에서 전치된 *Jerry*와 *Five students*는 주어짐성을 가지고 있다. 이전 문맥에 이미 언급되어있기 때문이다. Givón(1993)은 Y-이동에서 전치되는 구성소는 조용적으로 접근가능(anaphorically accessible)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 (18) a. I don't like tomatoes. *Potatoes* I like.
 b. I don't like him. *Her* I adore.
 c. I saw a man sitting there. **A woman* I didn't see.

(18a)의 *Potatoes*는 총칭적 NP이므로 그리고 (18b)의 *Her*는 대명사이므로 각각 주어짐성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18c)의 *A woman*은 비한정 명사구로서 총칭적으로 쓰인 NP가 아니다. 따라서 주어짐성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이 NP의 전치가 저지되는 것이다. Ward/Birner(1998)에서도 화제화구문에서 전치되는 구성소는 이전 문맥과 관련(linking relation)을 가져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든다.

- (19) a. Someone broke into garage last night. **My father* I need to talk to.
 b. I'm really tired tonight. **Maybe a movie* I'll rent.

(19a, b)에서 *My father*와 *a movie*는 이전 문맥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러면서 총칭적인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니다. 즉 주어짐성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 명사구가 전치된 문장이 비문을 이루는 것이다.

이어서 PP의 전치에 대해 살펴보겠다.

- (20) There was a lookout hole about 70 yards away, and *in this hole*, was a German sentinel.(= (2))

(20)에서 *and* 이하의 문장은 *this hole*이라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이다. 전치된 전치사구에서 전치사 *in*은 *this hole*이라는 명사구가 가지는 의미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치된 전치사구는 대하역성을 가지고 있다.

어휘적으로 지배되는 전치사구가 전치되려면 역시 이 전치사구의 한 구성소인 명사구는 주어짐성을 지닌 것이라야 한다. 이 조건과 관련하여 (14a)의 예문을 아래에 (21)로 제시하고 그것의 비문법성을 살펴보겠다.

(21) **In a basket, I put your clothes.*

문맥이 주어지지 않는 않지만 (21)에서 전치된 *In a basket*의 *a basket*은 비한정명사구임으로 이 명사구는 문맥에 처음 등장한 것이 틀림없다. 또한 (21)에서 이 명사구는 총칭적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명사구의 전치를 막는 이유는 이 명사구가 주어짐성을 지닌 명사구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만일 다음과 같은 문맥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22) *I borrowed a basket from your mother today.*

In the basket, I put your clothes.

(22)가 가능한 이유는 *the basket*이 주어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동사구의 전치에 관해 살펴보겠다.

(23) *Whether he stands or falls is his own Master's business; and stand he will, because his Master has power to enable him to stand. (= (4))*

(24) *Tchaikovsky was one of the most tormented men in musical history. In fact, one wonders how he managed to produce any music at all. But produce music he did.*

(25) *John stopped beating the donkey, if beat it he did.*

Ward(1990), Ward/Birner(1998)에서는 이 같은 동사구 전치의 기능을 명제확인(proposition affirmation) 또는 명제유보(Proposition suspension)라 하였다. 여기서 명제확인 또는 명제유보라 함은 이전 문맥에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명제에 대해 이것의 진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주장을 유보하는 것이다. (23)에서는 'he stands'와 'he falls' 두 개의 명제 중 'he stands'를 확인해 주고 있고, (24)에서는 'Tchaikovsky가 작곡을 했다'는 명제에 대해, 일반인들은 이를 의아해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다. (25)가 명제 유보의 한 예인데 여기서 'John이 당나귀를 때렸다'는 명제는 이미 전제된 상태이다. 그러나 화자는 이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믿음을 유보하고 있다.

Ward/Birner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 전치된 동사구는 확인 또는 유보될 명제를 대신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이어지는 주어+조동사 부분은 이에 대해 확인 또는 확인을 유보하는 논평을 하고 있다. 전치된 동사구가 논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는 대하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Ward(1990)는 동사구가 전치될 때는 그것과 동일한 동사구가 앞 문맥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전치되는 동사구가 반드시 주어집성을 가져야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형용사구나 명사구의 경우와는 달리 동사구의 전치에서는 유추에 의한 주어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같다.

- (26) a. John didn't mean to insult his aunt. But **upset her* he did.
 b. John didn't mean to insult his aunt. But *insult her* he did.

(26)에서 *insult her*는 앞 문장에 똑같은 동사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치가 허용되는데 비해서 *upset her*는 그렇지 못하므로 전치가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용사구의 전치에 대해 살펴보겠다.

- (27) “In the early days, our productions were cheap and cheerful,” says producer John Weaver of London-based Keefco. “We’d go into a seven-light studio, shoot the ban in one afternoon and edit as we went along. The client would walk out with a tape that day.” Today’s tapes may still be *cheerful*, but *cheap* they are not.
- (28) a. A: What do you think of John?
 b. B: He’s very successful, but humble guy.
 c. A: *Successful*, yes. But *humble* he’s not. (= (3))

Ward/Birner(1998)는 형용사구를 전치하는 구문은 대부분 두 가지 두드러진 속성을 대상으로 그 중 한 가지 속성은 주장하고 다른 한 가지 속성은 부정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는데 (27), (28)의 예에서는 *cheerful*, *successful*이라는 속성은 주장하고 *cheap*, *humble*이라는 속성은 부정하고 있다.

전치된 형용사구는 대하여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사구의 전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치된 형용사구는 하나의 명제를 대신하며, 이 형용사구에 이어지는 부분 즉 주어+계사(copula)의 역할은 이 명제에 대한 논평이라고 말할 수 있다. (27)에서는 ‘they are cheerful’이라는 명제에 대한 ‘긍정’과 ‘they are cheap’이라는 명제에 대한 ‘부정’이라는 논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전치된 형용사구는 이들 명제를 대신하는 표현이 되고 또한 이것은 긍정 또는 부정이라는 논평의 대상이 되므로 전치된 형용사구는 대하여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다. (28)의 예문에서도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전치된 형용사구는 동사구와 마찬가지로 술어(predicate)의 역할을 하므로 형용사구의 전치는 동사구의 전치와 그 역할에 있어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된다. 명사구가 전치된 문장 중에서도 주절의 동사가 계사인 경우에는 전치된 명사구의 역할이 전치된 형용사구의 역할과 같다고 볼 수 있다.

Ward/Birner(1998)는 전치되는 형용사구가 반드시 이전 문맥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discourse-old)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전치되는 형용사구는 주어집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29) A: The TV repairman keeps looking in the mirror.
B: *Handsome* he's not.
- (30) A: I don't think the TV repairman knows what he's doing.
B: **Handsome* he's not.

(29)에서는 *Handsome*이라는 전치된 형용사구가 TV수선공이 거울을 보는 행위로부터 유추될 수 있지만 (30)에서는 그러한 단서가 전혀 없다. 즉 TV수선공의 수선기능과 *handsome*이라는 형용사는 전혀 연관이 없다. 따라서 주어집성을 갖지 못한 *Handsome*은 전치가 저지된 것이다.

3.3. 비주어 상승(tough-movement)과 수동문화

먼저 비주어 상승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래의 예문에서 ‘___’로 표시된 자리는 각 문장의 주어가 의미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 자리이다.

- (31) a. This proposal is impossible to accept _____.
b. The subject is pleasant to discuss _____.
c. Linda is easy to please _____.

(31a, b, c)에서 각각의 주어 *This proposal*, *The subject*, *Linda*는 의미상 각각 동사 *accept*, *discuss*, *please*의 목적어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각 문장의 화제 역할을 한다. (31a)를 다시 바꿔보면 ‘As for this proposal, it is impossible to accept it.’ 정도로 볼 수 있어서 (31a)가 *This proposal*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만일 이들 주어가 ‘___’로 표시된 자리에 있었다면 이들을 화제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1a)에서 *This proposal*이 *accept*의 목적어 위치에 있다면 (31a)는 대략 ‘It is impossible to accept this proposal.’이 되어, 문장 전체의 의미가 같다 할지라도 ‘this proposal’은 그 자신이 화제가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 ‘for someone to accept this proposal’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독립적으로 대하여성을 갖는 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주어의 위치로 옮겨지면서 대하여성이

극대화되어 화제역할을 하는 것이다. (31b, c)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주어 상승구문에서 주어가 된 구성소가 가리키는 대상이 주어 집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 (32) a. Men are hard to please.
 b. This man was hard to please.
 c. *A man was hard to please.

(32a)에서 *Men*은 총칭명사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32b)에서 *this man*은 한정명사구이기 때문에 각각 주어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어가 비한정명사구인 (32c)에서는 비주어 상승이 저지되었다. 그 이유는 (32c)의 'a man'이 일반적인 모든 남성을 대신하는 총칭적 표현으로 볼 수 없어서 이것의 주어집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 비하여 예문 (31)의 주어들은 모두 한정명사구로서 이들이 이미 이전 문맥에 등장했거나 또는 청자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주어집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수동문에 대해 살펴본다. Shibatani(1985)는 수동문이 가지는 기능을 '행동주에 대한 주의 약화시키기(agent-defocusing)'라고 본다. 여기에서 'focusing'이란 대화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의 정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달라진다고 한다.

- (33) subject > direct object > indirect object > oblique object

위의 순서를 살펴보면 Shibatani가 말하는 agent-defocusing이란 행동주를 나타내는 문장의 구성소를 가급적 주어의 위치 즉 문두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행동주에게 주의가 집중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Shibatani가 말한 수동문의 기능에 대한 주장은 행동주에 초점을 둔 것인데 수동문이 행동주에 주의가 집중되는 것을 약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34) A: Where's the document?

B: It's lost.

만일 B가 그 서류를 잃어버린 장본인이라면 이러한 표현을 쓰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수동문을 행동주의 입장에서만 분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수동문에 by-행동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by-행동주가 문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것이 항상 신정보(new-information)가 되든지 아니면 신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자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되어 이것에 청자의 관심이 새로이 집중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다.

(35) You don't know about me, without you have read a book by the name of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but that ain't no matter. *That book was made by Mr. Mark Twain, and he told the truth, mainly.*

(35)에서는 행동주인 *Mr. Mark Twain*이 신정보에 포함되는데 바로 이어서 화제가 되어 이 사람에게 새로이 주의가 집중되고 있다. 다음 예문 (36)에서 행동주에 대한 청자의 관심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오로지 이 예문에서는 *he*로 표현되는 수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만 느껴진다.

(36) And nobody that didn't belong to the band could use that mark, and if he did *he must be sued*; and if he done it again *he must be killed*.

따라서 수동문의 기능을 '행동주에 대한 주의 약화시키기'로 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동문을 행동주의 입장에서만 볼 수는 없다. 수동자의 입장에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동문의 주어 위치에는 언제나 수동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수동문의 주어이외의 부분은 수동자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주어위치에 나타나는 수동자에게 가장 강한 대하여성을 부여하는

구문이 수동문인 것이다. 만일 이 수동자가 능동문에서 목적어의 위치에 있다면 이 정도의 대하여성은 갖지 못할 것이다.

- (37) a. Tom beat John.
b. John was beaten by Tom.

(37a)와 (37b)의 의미가 같다고 볼 때 (37a)는 Tom에 대해 논평하는 문장이지만 (37b)는 John에 대해 논평하는 문장이다. 수동자 John은 (37a)의 위치에서 보다 (37b)의 위치에서 훨씬 더 큰 대하여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Jespersen(1957)은 관심의 중추(the center of interest)가 되는 대상을 주어로 삼기위해 수동문이 선택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문장내의 어떤 구성소가 관심의 중추가 되는 것이라면 이 문장은 당연히 그 대상에 대하여 논평하는 문장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수동문의 주어는 주어집성을 가진 것들이지만 Y-이동이나 비주어 상승의 경우와는 달리 수동문에서는 수동자가 주어집성을 가져야 한다는 제약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하더라도 수동자가 능동문의 목적어위치에 있을 때보다 수동문의 주어위치에 있을 때 더 강화된 대하여성을 갖는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4. 결론

지금까지 좌측전위, Y-이동, 비주어 상승, 수동문화 등 몇 가지 영어문장의 조작에서 문두에 오는 구성소가 가리키는 대상이 가지는 대하여성과 주어집성이라는 화제적 속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두에 오는 모든 구성소가 가리키는 대상이 지니는 대하여성은 그것이 본래의 정상적인 위치에 있을 때 보다 증대되거나, 새로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전치의 기능은 대하여성의 증대 또는 생성이라고 여겨진다.

Y-이동이나 비주어상승의 경우에 전치되는 구성소는 반드시 주어집성을 가져야한다는 제약이 있는데, 그 밖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약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어집성을 지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무표적(unmarked)인 현상으로 볼 수 있었다.

화제가 지니는 필수적 속성이 대하어성과 주어집성이라고 본다면 전치되는 대부분의 구성소가 가리키는 대상을 화제로 보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Chafe, W. 1974. Language and consciousness. *Language* 50, 111-33.
- Dahl, Ö. 1974. Topic-comment structure revisited. In Ö. Dahl, ed., *Topic and Comment, Contextual Boundedness and Focus, Papers in Text Linguistics* 6, 1-24. Hamburg: Helmut Buske.
- Dik, S. C. 1978. *Functional Grammar*. Amsterdam: North Holland.
- Firbas, J. 1964. On defining the theme in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Travaux Linguistics de Prague* 1, 267-80.
- Geluykens, R. 1992. *From Discourse Process to Grammatical Construction: On Left-Dislocation in English*.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ivón, T. 1983. Introduction. In T. Givón, ed.,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5-41.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ivón, T.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al Based Introduction*. Vol. 2.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undel, J. 1974. *The Role of Topic and Comment in Linguistic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 Gundel, J. 1988. Universals of topic-comment structure. In M. Hammond, E. Moravcsik, and J. Wirth, eds., *Studies in Syntactic Typology*, 209-39.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alliday, M. A. K. 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II. *Journal of Linguistics* 3, 199-244.
- Hankamer, J. 1971. *Constraints on Deletion i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 Hirschbirg, J. 1991. *A Theory of Scalar Implicature*. New York: Garland.
- Jespersen, O. 1957.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hesius, V. 1915. O passivu v moderní angličtině. *Sborník filologický* 5. 198-220
- Postal, P. M. 1971. *Cross-Over Phenomena*.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 Prince, E. F. 1984. Topicalization and left-dislocation: a functional analysis. In S. White and V. Teller, eds., *Discourses in Reading and Linguistics*. New York: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213-25.

- Prince, E. F. 1997. On the functions of left-dislocation in English discourse. In A. Kamio, ed., *Directions in Functional Linguistics*, 117-43.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Reinhart, T. 1981. Pragmatics and linguistics: an analysis of sentence topics. *Philosophica* 27, 53-94.
- Shibatani, M. 1985. Passives and related constructions: a prototype analysis. *Language* 61, 821-48.
- Vallduví, E. 1992. The informational component. In J. Hankamer, ed., *Outstanding Dissertations in Linguistics*. New York: Garland.
- Ward, G. 1988.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reposing*. New York: Garland.
- Ward, G. 1990. The discourse functions of VP preposing. *Language* 66, 742-63.
- Ward, G. and B. Birner. 1998. *Information Status and Noncanonical Word Order in English*.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정일병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신아파트 106-204

우편번호: 130-775

전화번호: 02) 3295-0330

E-mail: ilbjeong@hanmail.net

접수일자: 2001. 10. 17.

게재결정: 2001. 11. 30.